

0812(금) 예레미야 21-24장 착각들

예레미야는 왕과 나라 전체에 회개를 촉구합니다(22:1-9).

불순종하는 자들이 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은 단 하나,
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것 외엔 없습니다(21:8).
국가들 간의 동맹과 연합으로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,
거짓 신탁에 기댄 <괜찮을 것>이란 생각 모두 착각입니다.
(21:1, 4-7/ 21:2, 23:16-17)

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
새 창조, 새 다윗 왕조, 새 출애굽을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(23:1-8).
새 일을 위해서는 모든 죄악을 진멸하고 정화해야 합니다(21:11-22장, 23:9-40).
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(23:1-8),
유다 왕조가 실패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(23:5-6).

하나님은 목자로 인해 흩어진 양들을 회복시키시고(23:3),
잡혀간 포로들을 <좋은 무화과> 되게 하실 것입니다(24장).
'포로 된 자들은 심판 받은 자, 남은 자들은 의로운 자'라는
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우월감 역시 착각입니다(24:8)

그렇다고 포로 된 자들이 우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.
하나님께서 그들에게 <여호와를 아는 마음>을 주실 때에,
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(24:7, 30:22).

하나님께 죄를 숨길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착각입니다(23:3-4).
유다의 멸망은 국력이 약화 되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(21:8-9).
유다의 회복 역시 정치적 역량과 국제 정세에 달린 것이 아니라
전적으로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(23:20, 25:11).

나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?

- ❶ 고난당하는 이들보다 영적/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?
- ❷ 현실(세상) 문제는 현실적(세상적)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21-24장